보도 자료	차별에 저항하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북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소 : 우)55030 전주시 덕진구 한배미로 16, 3층 전화 : 063-247-1503	
	메일 : jbsadd420@gmail.com 홈페이지 : https://jb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5년 10월 27일(월)
담당	양은주 063-247-1503	페이지 2매
제목	2026년 전라북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촉구 기자회견	

#예산없이 권리없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장콜 30분은 기다릴수 있지만, 3시간은 기다릴수 없다
이동권 쟁취, 탈시설권리 쟁취, 노동권 쟁취, 자립생활권리 쟁취

2026년 전라북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촉구 기자회견

- 일 시 : 2025. 10. 29(수) 오후2시
- 장 소 : 전북도청 현관앞

주최 :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북장차연')와 전북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전북의 장애인단체 및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구성한 연대체입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 전북장차연과 공동투쟁단은 올해 4월, 2026년 장애인권리예산 요구안을 전라북도에 제안하고 관련부서(교통과/장애인복지과)와 계속 면담을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는 전라북도에 2023년부터 장콜 최대 대기시간(3-4시간)을 줄이려면 차량 1대당 운전원 2.5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전라북도의 정책은 법정대수를 채우는데에 급급한 수준이었고, 아직도 최대대기시간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 천만 다행인 것은 최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56시간에서 60시간으로 확대(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겠다는 장애인복지과의 의지를 확인했지만 이마저도 예산과를 통과해야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중증장애인의 지원을 위한 지원인력은 너무도 부족해서 UN이 권고한 장애인식개선 취지로서의 일자리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자립생활권리는 어떤가요? 장애인 당사자들의 투쟁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애인복지법 제54조)가 만들어졌지만 2023년 국민의힘 이종성의원의 폭거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악되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가 신설되었고, 내년에 전라북도에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1개소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는 윤석열 정권이 자립생활센터를 정권에 입맛에 맞게 길들이기 위해 만들어 졌기에 자립생활권리를 바탕으로 권익옹호를 해온 자립생활센터의 고유한 정체성을 훼손할 수 밖에 없지만 전라북도는 예산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 윤석열정권 퇴진 이후, 이재명정부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라북도 장애인들은 이동 하기 위해 3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차별적인 현실을 두고 그 누가 민주주의를 말할수 있겠습니까!!

○ 이에 우리는 29일 오전 전북도지사님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면담 이후 오후 2시 기자회견에서 면담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 진행후 천막농성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귀 언론사의 취재로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함께 만들어주시길 요청합니다.

■ 기자회견 진행순서

#예산없이 권리없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장콜 30분은 기다릴수 있지만, 3시간은 기다릴수 없다
이동권 쟁취, 탈시설권리 쟁취, 노동권 쟁취, 자립생활권리 쟁취

2026년 전북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촉구 기자회견

-일시: 2025년 10월 29일(수) 오후2시 -장소: 전북특별자치도청 현관앞
-주최: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회: 유승권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민중의례	
- 참가단체 소개	
1. 여는발언	강현석(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2. 발 언: 예산요구안 설명	양은주(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3. 발 언: 이동권 관련	강성희(이동권연대 군산지회)
4. 발 언: 장애인자립생활 권리	늘사랑(김영민 국장)
5. 공 연: 율동, 노래 공연	전북 권중일자리 노동자들(전주, 익산)
6. 발 언: 노동권 관련	권중일 노동자 (고창,늘사랑, 세움, 중증센터)
7. 연대발언: 전국단체	박 현(한자협 동료상담위원장)
8. 연대발언: 타지역 활동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9. 연대발언: 타지역 활동가	무안장애인자립생활센터
10. 연대발언: 타지역 활동가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11. 닫는발언	전국단체 대표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